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광주·전남 4년 만에 3배 증가

2014년 1400명서 8월 현재 4619명...전담 경찰 인력은 없어

소재 파악되지 않고 허위 제출 상당수에 재발 우려 범범죄자도 늘어

광주·전남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지만 전담 경찰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14년 1400명에서 올 8월 현재는 4619명으로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근거해 성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4년 1400명, 2015년 1994명, 2016년 2551명, 2017년 3247명,

2018년 4164명, 2019년 8월까지 4619명이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1만8171명에서 지난해 8월에는 6만6929명으로 늘어 2.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해 입건된 성범죄자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에서 소재불명 성범

범죄자는 2014년 3명, 2015년 2명, 2016년 5명, 2017년 6명, 2018년 7명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마제출, 거짓신고 등으로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2016년 114명, 2017년 89명, 2018년 147명, 2019년 8월까지 85명으로 총 435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없이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관

리업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분홍빛 물결의 향연 지난달 30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꽃재 프로젝트 수목원에 핑크둘리가 만개한 가운데 수목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분홍빛 물결 속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영암군, 문화관광 홍보물 음식업소 등 60개소 비치

문화관광·농특산물 책자, 홍보물꽃이 제작 설치 완료

영암군은 문화관광 등 홍보책자를 비치할 수 있는 홍보물꽃이를 제작하여 관내 60개소에 설치했다.
 군에서는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꽃이를 제작했으며, 음식·숙박업소, 커피숍, 도로공원, 터미널, 대형마트 등에 집중 비치했다.
 이번, 홍보물꽃이 설치로 인하여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직접 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동안 전화 문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정의 주요행사·축제 등 다양한 군정 소식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행정정보와 다양한 복지정책, 생활법률과 건강정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정보 등이 담겨있는 군정소식지를 비치하여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물꽃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새로운 소식을 수시로 비치하고 부족분을 추가해 나가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블로그·SNS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기능성 색깔보리 5종 특화단지 조성

농업인 45명 대상 계약 재배 교육 실시...청산도 중심으로 100ha 재배

완도군은 최근 완도군 청산면과 고금면에서 흑색보리, 자색보리, 청색보리 등 색깔보리 특화단지 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계약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 청산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건강의 섬 완도’, ‘치유의 섬 완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기능성 색깔보리를 도입하고,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색깔보리는 흑색, 자색, 청색, 흰색, 길보리 5가지 품종이다. 흑색보리는 항산화 물질인 타닌이 풍부하고, 안토시아닌은 검은콩, 흑미에 비해 4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자색보리는 안토시아닌과 단백질,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플로보노이드가 풍부하고, 청색보리는 두뇌 활동을 높여주고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B6가 풍부하고, 단백질 염산 등도 풍부하다.
 노란색보리인 영백찰보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보리밥을 했을 때 갈변이 일어나지 않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는데, 완도군에서는 통상실시



리전문업체를 수십 차례 접촉하여 계약 재배를 협의의 하였고, 색깔보리 종자 증식단지 17ha를 조성, 색깔보리 종자 20톤을 준비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청산도를 중심으로 100ha에 파종하면서 본격적인 색깔보리 재배에 들어가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병연 지도사는 “청보리와 유채로 유명한 청산도에서 이제 흑색보리, 자색보리, 청색보리 등 색깔보리를 볼 수 있고, 치유 기능성을 지닌 색깔보리, 색깔보리국수를 먹고, 보리커피 등 색깔보리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제147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

1000년 전 고려청자를 만나다.

in 강진청자축제

2019. 10. 3.(목) ~ 10. 9.(수)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